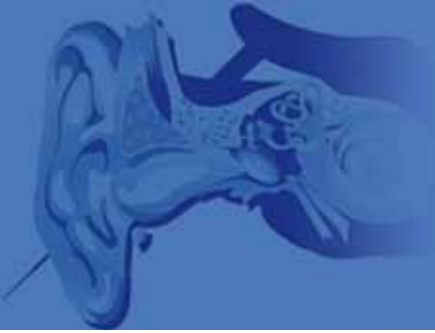


국내 난청환자의 보청기 사용 효과성과 장애요인 연구 토론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0년 12월 13일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한청각학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국내 난청 환자 현황 및 보청기 이용 현황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주관적으로 청력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군은 5.3%였으며 이러한 청력문제 군에서 보청기 사용률은 5.7%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였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군에서 청력문제를 호소한 비율이 65세 미만군에 비해 약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보청기 급여의 경우 34만 원 이내는 실 구입가의 80%, 34만 원 초과 시는 구입 가격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27만 2천 원(34만 원의 80%)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하여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보청기 보장구 보험급여 현황을 파악한 결과 보청기 보장구 현금급여를 받은 환자의 보청기 급여 총액은 2009년 63억 원이었는데 반해 보고된 보청기 구입 총액은 297억 원으로 실제로 환자들은 구입 총액의 20%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의료이용을 분석한 결과 보청기 구입 후 12.2%만이 일주일 내에 난청 또는 이비인후과 관련 의료이용을 하였으며 이를 100일

까지 추적해도 30.4%만이 의료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나 보청기 구입 이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청기 사용률이 낮은 장애요인

난청 환자 31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보청기가 필요한 군임에도 보청기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는 착용의 불편감과 높은 비용 부담, 보청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나타났다. 보청기 구입 환자 중 구입 후 현재 사용하지 않는 환자(80명)의 65% 이상, 사용하는 환자(121명)의 20% 이상이 보청기 사용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사용군의 보청기 착용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이유로는 '잡음/시끄러운 상황과 '높은 비용 부담'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청기를 구입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보청기 효과가 낮은 것과 '보청기 착용의 불편함' 등으로 답했다. 그러나 미사용군에게 재구매 의사를 물었을 때 재구매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7.1%로 보청기 사용에 대한 미충족 의료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설문조사에서 보청기를 구입한 환자 중 급여지원을 받은 비중은 29.4% 밖에 되지 않아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결과에 대한 각계 의견

패널토론은 1) 보청기의 낮은 사용률과 만족도, 2) 보청기 처방 관련 흐름, 3) 관련 제도 개선의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지정 패 널 외에도 객석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 책임자	안정훈 실장(한국보건 의료연구원)	
	최장: 정원호 교수(삼성서울병원)	
토론자	오승하 교수(서울대 병원)	정종우 교수(서울아산병원)
	채재원 교수(고려대 구로병원)	최재영 교수(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시내 교수(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전영명 원장(소리이비인후과 퓨처센터)
	김성근 원장(김성근이비인후과 서울청각센터)	안정훈 실장(한국보건 의료연구원)

토론회에서 각 토론자들이 논의한 내용들을 관련 주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청기의 낮은 사용률과 만족도

보청기의 가격에 대해서는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면 보청기가 다소 고 비용이라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입장과 우리나라 가계소득 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에 가격 정보 공개 등을 통한 가격 인하가 필요 할 것이라는 입장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청기 조절 비용이 보 청기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의 인터넷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였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보청기를 사용하는 환자들의 소득을 고려할 때 보험 적용이 안 되고 일정금액을 한 번에 지불해야 하므로 환자 부담이 큰 측면이 있으므로 환자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 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보청기가 낮은 사용률을 보인 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보청기 의 효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만큼,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며 보청기 가 필요한 난청 환자에게 적합한 보청기를 처방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참여한 패널 모두 보청기를 처방한 이후에도 보청기 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질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보청기 처방 흐름

참석한 패널들 사이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보청기 판매상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즉 난청상담과 치료, 적합한 보 청기 처방, 보청기의 질 관리가 잘 이루어져 부적합한 보청기의 처방

과 유통을 막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또한 보청기 환자들에게 보 청기 처방 이후에도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 등을 잘 교육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하여 보청기 처방 흐름 및 관련 현황을 보기 위해서는 보청기 판매상을 통 해 보청기를 구입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 견도 있었다.

보청기 관련 제도 개선

패널들 사이에 제도 개선과 관련한 여러 의견들이 쏟아졌다. 먼저 보 청기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보청기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필 요하며 낮은 보청기 이용은 만족도가 낮은 것에 기인하는 만큼 만족 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조기 난청 발견 및 재활을 위한 시 스템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보청기의 제도적 지원 에 대해 보청기 평균 구입비용(120만 원)의 50%까지 만이라도 지원확 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보청기 지원 확대도 중요 하지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환자들의 보청기 효과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보청기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제공의 장이 마련되는 등 보청기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보청기 질 관리의 중요성이 여러 패널들 사이에 서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보청기 산업 R&D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 아져야 할 것이라고 보였다.

그 밖에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15세 이하 소아부터라도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처방을 통해 보청기를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보청기 처방 흐름에 대한 관리 및 연 구가 필요하며 보청기 처방 후 관리가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전문가 그룹의 청각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나라 보청기의 낮은 사용률 및 낮은 만족도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평가된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관련 홍보가 무엇보다 필요 할 것이라는 데에 입을 모았다. 또한 난청환자에서 보청기가 제 대로 활용되고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청기와 관 련된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 간의 보다 긴밀한 연계와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